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조성계획 연구¹⁾

A Study on Beach Trail Planning in Taeanhaean National Park

한봉호¹ · 최진우² · 노태환³ · 임성수³

¹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²도시생태학연구센터 HUNECO, ³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서론

최근 웰빙트렌드의 확산과 더불어 제주 올레,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등 새로운 유형의 걷기 문화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도시민들의 도보탐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차원의 인프라 확충과 국립공원에서도 다양한 숲생태 및 문화 등의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탐방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약 230km에 달하는 천혜의 리아스식 해안, 사구와 기암괴석이 함께 하는 해안(海岸)형 국립공원으로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시에 걸쳐 있으며 1978년 10월 20일에 1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국내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독특한 해안생태계를 경험하는 다양한 탐방문화 제공이 가능한 국립공원이다.

하지만 태안해안국립공원내 위치한 31개소의 해수욕장은 물놀이 중심 이용으로 성수기 위주 단순한 관광 및 지역경제 불균형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7년 12월에 일어난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방문객 감소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됐다. 따라서 성수기/비수기 탐방객수 불균형 해소 및 태안해안국립공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체형 및 이용욕구 증대에 따른 수용방안 마련과 다양한 탐방문화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다 합리적인 휴양관리를 위해서는 휴양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이용객들의 휴양 경험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유기준, 2001).

2008년 조성된 지리산 둘레길과 2009년 예약제로 개방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2010년 조성된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의 이용사례로 볼 때, 국립공원의 생태, 문화, 경관을 테마로 조성된 탐방로가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탐방객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탐방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연자원 보전과 국민 여가기회 제공이라는 국립공원의 상반되는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훼손적 탐방행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줄 수 있는 공원자원의 이용이 필요하다.

본 계획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수욕(물놀이)중심의 이용행태를 개선하여 우수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해안생태자원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국립공원 보전의 중요도를 일깨우는 탐방프로그램 다양화와 해안사구, 사구습지 등 핵심적인 자연생태·경관 훼손을 예방하는데 있다.

차별화된 해변길 조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체험·사색·명상 등 국립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으며, 공원입구 및 공원주변 마을지역 등 탐방객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지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북측 학암포에서 남측 영목항까지 길이 약 137km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해변길 노선 선정 및 현황분석, 해변길 조성구상, 해변길 가치 및 효과 증진 방안 단계로 진행하였다.

해변길 노선 선정 및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해변길 노선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공원 경계부 주변 해안제방길, 백사장길, 방풍림(곰솔림)길, 자연관찰로, 산림길, 마을길, 방제도로 등 노선유형 분포 조사와 노면유형,

1) 본 연구는 2011년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의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조성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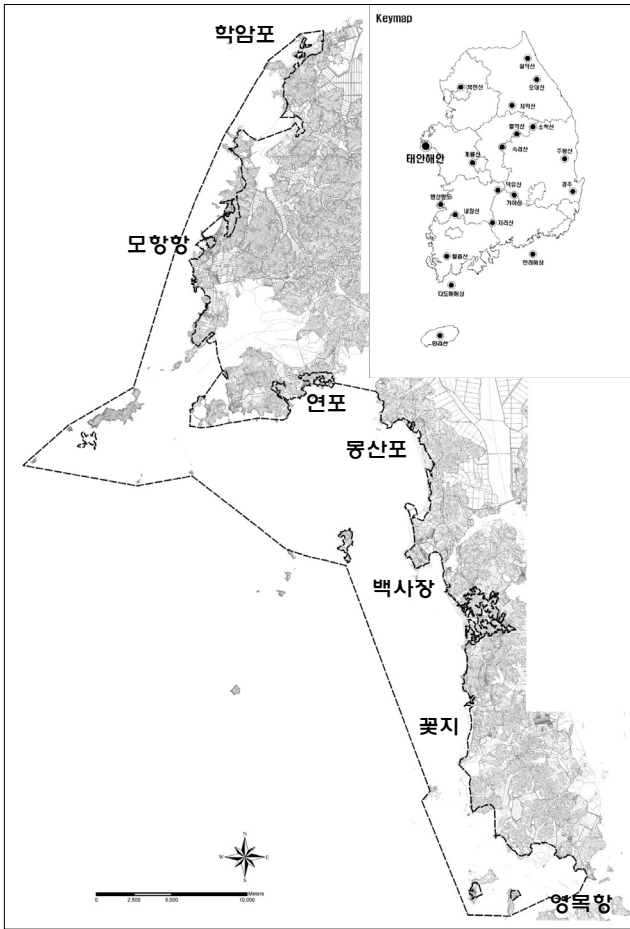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도

폭, 훼손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노선의 공원구역 현황 조사, 지역문화자원 조사, 자연경관자원 조사, 해안생태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해변길에 적용할 수 있는 탐방자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해변길 조성 구상 단계에서는 접근성 및 탐방자원 분포 결과를 고려하여 해변길 구간을 구분하고 구간별 주제를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몽산포항에서 꽃지해수욕장 구간을 대상으로 시설물 설치 및 탐방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해변길 조성에 따른 노선, 도입시설 종류, 위치 등을 제시하였다. 해변길 가치 및 효과 증진 방안 단계에서는 해변길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구상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노선선정 및 현황분석

해변길 노선 선정 기준은 국립공원 해변길 조성개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탐방자원 활용, 사유지 우회, 안전 및 교통, 다변성 고려, 선택 및 회피를 고려한 바람직한 노선설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우수경관, 해안생태, 오감자연자원, 어촌문화, 산림 등 탐방자원이 주변에 분포하는 길, 최대한

표 1.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구간별 주요 노선유형 및 탐방자원 현황

구간	주요 노선유형	주요 탐방자원
학ampo해수욕장~ 신두리해수욕장	·학ampo 자연관찰로, 백사장길, 산림길 등 ·유류사고 피해지역으로 방제도로 분포 ·신두리해안사구 주변 방풍림(곰솔림)길	·학ampo 자연관찰프로그램, 썰물시 소분점도 바닷길 탐방, 뒷개너머독살, 신두리 해안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8경), 두웅습지(람사르 사이트) 등
신두리해수욕장~ 모항항	·신두리 마을길, 해안제방길, 신두리 백사장길 등 ·유류사고 피해지역으로 방제도로 분포	·소근진성 주변 소사나무군락, 이팝나무 보호수, 천리포 수목원, 만리포 해변(태안 8경) 등
모항항~ 연포해수욕장	·송현리 마을길, 해안제방길, 경작지길 등 ·서해안 특징인 염전이 분포한 마을길	·썰물시 화도 바닷길 탐방, 마금리 낭금마을 자연 체험, 갯벌 경관, 마금리 간척 사업 흔적
연포해수욕장~ 몽산포항	·남산리 마을길, 해안제방길, 백사장길 등 ·서해안 특징인 염전이 분포한 마을길	·서해안 연포해돋이, 용신리 어촌체험마을, 해안제방길 해안 경관 조망, 개천독살, 굴혈독살 등
몽산포항~ 백사장항	·몽산포 자연관찰로, 달산포 방풍림(곰솔림)길, 신 ·온리 마을길 등	·몽산포 사구습지, 몽산해변(태안 8경), 달산포 방풍림, 별주부마을, 노루미독살, 백합시험장, 송화염전 등
백사장항~ 꽃지해수욕장	·삼봉 방풍림(곰솔림)길, 안면 백사장길, 빗개 해안 ·제방길 등 ·기지포 자연관찰로 데크길	·삼봉·기지포 해안사구 복원지, 기지포 자연관찰프로그램, 두여독살, 빗개독살, 안면도 소나무림, 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138호), 썰물시 할미·할아비바위(태안 8경) 바닷길 탐방 등
꽃지해수욕장~ 장삼포해수욕장	·장곡리 해안제방길, 병술만 방풍림(곰솔림)길, 산 ·림길, 마을길 등	·병술만 곰솔방풍림, 병술만 어촌체험마을, 썰물시 썰색은여 바닷길 탐방, 고느고지독살 등
장삼포해수욕장~ 영목항	·조개부리 마을길, 해안제방길, 경작지길 등	·바람아래 해안사구, 폐염전 칠면조군락지, 조개부리독살, 영목항 어촌체험마을, 서해안 영목항해맞이 등

공원 구역 내 노선으로 하되 사유지는 가능한 우회하는 길, 도로를 가능한 피하여 안전한 길과 대중교통 연계로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관, 밀물·썰물, 자연색, 자연생태계 등 다변성을 고려하고 성수기의 조용한 길, 썰물 시 열리는 바닷길, 일부 군사길은 스스로 선택, 유도할 수 있는 길 등을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해변길 노선 선정을 위한 현황분석 결과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구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황분석 구간은 주요 해수욕장 및 항구 등을 기점으로 시점과 종점을 구분하여 총 8개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구간별 주요 노선유형 및 탐방자원 현황은 표 1과 같다.

해변길 노선 137,483m 구간의 노선유형은 해안제방길, 백사장길, 방풍림(곰솔림)길, 자연관찰로, 산림길, 마을길, 기타 등 총 7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마을길이 전체 길이의 35.5% 비율로 가장 높았고, 해안제방길 24.3%, 산림길 9.5%, 방풍림(곰솔림)길 6.9% 등이었다. 학ampo에서 모항항까지 구간에서는 산림내 방제도로가 분포하였고 모항항에서 몽산포항까지는 염전과 양식장 사이길이 분포하였다. 또한 전구간내 바닷길을 탐방할 수 있는 곳은 소분점도, 화도, 할미·할아비바위, 쌀석은여 4개 지역이었다.

해변길로 선정된 노선 중 공원경계 외부 구간(78.6%)이 내부 구간(21.4%) 보다 높았다. 해변길로 선정된 노선의 노면 폭은 5m 이상 구간과 4~5m 이상 구간이 각각 해변길 전체 길이의 33.0%, 24.1% 비율로 높았다. 노면 폭 5m 이상 구간은 주로 마을길, 백사장길, 도로로 구성된 유형이었다. 노면유형은 마사토와 콘크리트 구간이 각각 해변길 전체 길이의 34.3%, 31.4% 비율로 높았으며 해안형국립공원 특성이 나타난 모래유형은 12.6%이었다.

해변길의 훼손정도를 분석한 결과 콘크리트, 아스팔트, 목재데크 등 정비 및 포장된 상태의 유형이 전체 길이의 54.2%로 가장 높았다. 양호 및 경미한 훼손 상태는 32.7%이었으며 정비가 필요한 훼손 상태와 정비가 시급한 훼손 상태는 각각 8.6%와 4.6% 비율로 분포하였다.

2. 해변길 조성 계획구상

국립공원 해변길은 걷는 길을 새롭게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탐방로, 해안제방길, 백사장길, 방풍림(곰솔림)길, 자연관찰로, 산림길, 마을길 등을 활용하고 해안사구, 사구습지 등 해안생태계 보존과 2007년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방제도로는 활용, 복원, 통제하여 해안생태계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공원구역 내부와 주변지역에 해수욕장, 취락지, 관광지, 상업지 등으로 형성된 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국립공원 공원구역 내부와 주변에 조성된 해변길은 특색있는 해안지역 문화 반영 및 지역 주민 참여 유도를 통해 공원 주변 마을 및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은 해안형 국립공원의 해안생태계, 지역문화, 자연경관, 휴양 등 다양한 테마와 맛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야기거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탐방로로 조성해야 한다. 노선의 테마는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주변의 지역문화자원, 자연경관자원, 해안생태자원 등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흥미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어야 한다.

해변길을 통한 새로운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탐방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탐방시설과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해변길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관, 밀물·썰물, 자연색, 자연생태계 등 다변성을 고려하여 성수기의 조용한 길, 썰물 시 열리는 바닷길, 밀물 시 바다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해안길 등을 조성할 수 있다.

태안 해변길 시점 학ampo해수욕장에서 종점 영목항까지의 전체 노선 137,483m는 일반 성인이 중추하는데 9일이 소요되는 길이므로 적절한 구간을 구분하여 계획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변길 계획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 성인의 보행속도(1시간 약 4km)와 1개 코스당 1~2일을 고려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에 주요 거점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해변길 계획구간의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여 주요 해수욕장 및 항구와 대중교통체계를 고려하고 탐방객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8개 계획구간을 구분하였다. 계획구간에 적합한 테마탐방로를 설정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다른 유사한 지역문화, 자연경관, 해안생태자원 등이 분포하는 구간을 구분하여 구간별 계획 내용을 제시하였다(표 2).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탐방프로그램은 노선주변의 지역문화, 자연경관, 해안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테마길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전체 노선 137.5km, 총 8개 구

표 2.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구간별 계획구상

구간	주요 계획 내용		
	지역문화	자연경관	해안생태
학암포해수욕장~ 신두리해수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암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점부 거점 공간화 •학암포탐방지원센터, 야영장, 관광안내소, 먼동 특산물판매장 활용 •먼동지역 유류오염 피해 역사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동해수욕장 경관 해설판 활용 •신두리해안사구 경관 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암포 자연관찰프로그램 활용 •신두리해안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8경), 두웅습지(람사르 사이트) 해설프로그램 개발 •야생조류 탐조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 등 겨울철 오리류 도래
신두리해수욕장~ 모항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두리~의항항 나룻배 복원 •구름포지역 유류오염 피해 역사프로그램 구성 •의항항독살, 신너루독살, 뒷개너머독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리저수지 주변 십터 갯벌 경관 조망 •만리포항 주변 데크 활용을 통한 만리포해변(태안 8경) 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근진성 주변 소사나무군락 탐방 •만리저수지 야생조류 탐조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등 겨울철 오리류 도래
모항항~ 연포해수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은돌의 지명 유래 및 유류피해 역사 소개 •법산리 농촌체험마을 연계 •마금리 낭금마을 자연 체험(10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제방길 갯벌 경관 감상 •마금리 간척지 사업 흔적지역 : 간척사업과 갯벌 해설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산리 갯벌 체험프로그램 활용 •야생조류 탐조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등 겨울철 오리류 도래
연포해수욕장~ 몽산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신리 어촌체험마을 연계 •개천독살, 굴혈독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 연포해돋이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신리 갯벌 체험프로그램 활용 •남산리 염전 체험프로그램 개발
몽산포항~ 백사장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몽산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점부 거점 공간화 •수산물판매장, 상가 활용 유도, 해변길 안내센터 조성, 문산포 유래 및 문씨 집성촌 이야기 구성 •별주부마을 탐방자원 활용 •별주부센터 활용, 어살문화축제(6~7월경), 용왕제행사, 별주부 스토리텔링 구성, 노루미독살 활용 •드르니항~백사장항 나룻배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몽산포항 산림길 전망대 조성(태안 8경 몽산해변 조망) •별주부센터 전망대 활용을 통한 해안경관 감상 •드르니항 해님이 경관 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몽산포 자연관찰프로그램 활용 •몽산포, 달산포지역 모래와 솔밭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모랫바닥 맨발체험, 모래조각체험 •신온리 송화염전 체험프로그램 연계
백사장항~ 꽃지해수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사장항 활성화를 위한 상가변영회와 협력체계 구축 •지역 특색 먹거리 개발 •두여, 밧개 독살 활용 •할미·할아비바위 유래 스토리텔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포 데크전망대 활용을 통한 해안사구 경관 감상 •두여, 두에기, 방포 조망점지역 해안 파노라믹 경관 감상 •폐소소 분포지역 전망대 조성 •할미·할아비바위(태안 8경) 해님이 경관 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사장해수욕장 해안사구 복원 •기지포 자연관찰로 프로그램 활용 •두에기 산림길지역 안면도 소나무림 해설
꽃지해수욕장~ 장삼포해수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술만 어촌체험마을 연계 •고노고지독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술만 전망대 활용을 통한 해안경관 감상 •쌀썩은여 해안 경관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술만, 운여해수욕장 해안사구 보존 및 관찰프로그램 구성
장삼포해수욕장~ 영목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개부리독살 활용 •영목항 어촌체험마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개부리 폐염전 칠면초군락 경관 감상 •서해안 영목항 해맞이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아래 해안사구 보존 및 관찰프로그램 구성

간을 대상으로 5개 노선 테마를 구상하였다. 학암포~모항 구간(29.0km)은 해안생태, 유류피해 등의 교육, 모항항~몽산포항 구간(52.7km)은 염전, 갯벌, 독살 등의 체험, 몽산포항~백사장항 구간(15.7km)은 농어촌마을, 노을 등의 추억, 백사장항~꽃지해수욕장 구간(12.9km)은 해님이 경관, 해안 파노라믹 경관, 파도소리 등의 감상, 꽃지해수욕장~영목항

구간(28.9km)은 오감, 농어촌마을프로그램 등 체험을 구상하였다.

해변길의 홍보와 탐방 서비스 지원은 기존의 탐방지원센터,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해안의 해안경관을 감상 할 수 있는 조망점에는 전망대, 경관해설판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거점 지역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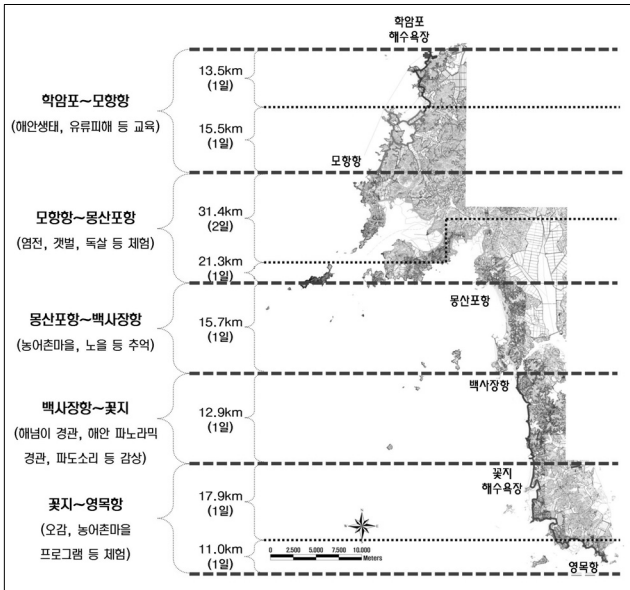


그림 2.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노선 테마 구상도

인 주요 항구와 해수욕장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변길 선 정노선 갈림길, 마을진입부, 터미널, 버스정류장, 전신주, 수목 등에 이정표를 설치하여 탐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의 양질의 홍보와 탐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몽산포항~꽃지해수욕장 구간의 시설물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입해야 할 시설물을 분석하였다.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도입해야 할 시설물은 안내센터(탐방지원센터),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 안내판 및 게시판, 이정표 등 이었다.

이야기가 있는 테마길 조성을 위해 해변길의 탐방프로그램은 해안생태자원으로 갯벌, 백사장훼손, 해안사구(훼손), 방풍림, 사구습지, 염전, 해안 특이식물, 해안 산림식생, 야생동물과 자연경관자원으로 바위, 섬, 일몰, 소리, 파노라믹 경관, 노을, 지역문화자원으로 독살, 민속문화(제), 전설, 지명유래, 축제, 음식, 레크레이션 등의 자원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자원을 활용하여 몽산포항~꽃지해수욕장 구간을 대

상으로 14개의 해설프로그램과 12개의 체험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3. 해변길 가치 및 효과 증진 방안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의 가장 중요한 조성 목표 중 하나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인문·지리 특성상 공원구역에 해수욕장, 취락지, 관광지, 상업지 등으로 형성된 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자연보존 및 탐방관리에 있어서 인근 지자체 및 마을주민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립공원 공원구역 내부와 주변에 조성된 해변길은 주변 지자체 및 마을주민과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특색있는 지역 문화를 반영한 해변길을 조성하고, 조성 및 관리 과정에 인근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한다. 해변길 탐방객 증가에 따른 마을 방문이 늘어나면 상가이용, 특산품 구매 등 지역주민 생활 기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 방향으로 태안군 월별 특색 먹거리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전통식을 활용한 항구 고유 식단 개발, 다양한 연층을 고려한 먹거리 개발을 구상하였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매소 설치, 별주부축제, 백합축제, 독살축제, 여름모래축제 등 기존 지역 축제 연계, 지역 축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 홍보 및 지원은 식당, 숙박업소 등 지역정보를 담은 리플렛 작성 배포, 지역 어촌문화, 해안 경관 탐방프로그램 활용 등 해안문화 홍보를 제안하였다.

인용문헌

국립공원관리공단(2005)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619쪽.
유기준(2001)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자원관리. 김성일과 박석희 (편): 지속 가능한 관광. 일신사, 265-296쪽.